



구기 종목 중 가장 개인기록이 세분화되어 있는 프로야구는 그 만큼 팀워크를 위해 주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 시즌 각 팀의 캡틴은 베테랑과 젊은 주축 선수들로 양분되어 있다. 두산 홍성훈, 삼성 최형우(위쪽 왼쪽부터), NC 이호준, KIA 김상훈, 롯데 조성환, LG 이병규, 한화 김태균, 넥센 이택근, SK 박정권(아래쪽 왼쪽부터).



메이저리그 구단 중 올 겨울 스포브리그 최고 큰손은 류현진을 영입한 LA 다저스다. MLB네트워드는 2013년 다저스 선발진을 내셔널리그 전체 2위로 높이 평가하며 류현진을 4선발로 확신했다. AP 연합뉴스

### 류현진 다저스 합류 기존 투수들 초긴장

카푸아노 "경쟁 타이밍 받아들인다" MLB네트워드는 "류현진 4선발 확신"

류현진(26)이 가세한 LA 다저스 선발진은 메이저리그의 '핫 이슈'다. FA(프리에이전트) 최대어였던 우완 잭 그레이넬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가세하면서 자원은 더 풍부해지고 경쟁은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류현진은 다저스의 기존 선발투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당장 크리스 카푸아노(35)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카푸아노는 지난 시즌 다저스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승수(12승)와 탈삼진(162개)을 기록한 투수. 방어율(3.72)은 가장 좋았다. 다만 시즌 중반 이후 구위와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진 게 문제였다. 카푸아노는 16일(한국시간) 보도된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다저스에 있다는 사실이 흥분된다"며 "위대한 팀이 되려면 경쟁은 뒤따라야 마련"이라고 현실을 인정했다. 또 "경쟁을 뚫으려면 때 시를 몸 최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타이밍이 왔을 때 건장한 모습으로 활약을 보여주면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물론 류현진은 이미 선발 한 자리를 확실하게 꿰차다. MLB 네트워드는 15일(한국시간) 내셔널리그 선발진 베스트5 가운데 2위로 다저스를 꼽았다. 선정에 참여한 야구 해설자 미치 윌리엄스는 그레이넬과 클레이튼 커쇼, 베테랑 조시 베키에 이어 류현진을 4선발로 확신했다. 또 카푸아노, 채드 빌링슬리, 애런 하람, 테드 윌리 등이 겨울 5선발로는 일단 하람이 유력하다고 예상하면서 "5선발은 유동적이지만 1~3선발이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축적된 데이터가 없는 류현진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뿐, 부동의 4선발감으로 뭇목을 것이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부터 제 자리를 확보한 류현진. 이제 경쟁한 선배들 틈에서 더 비싸지는 일단 남았다. 류현진은 2006년 한화에서도 4선발로 데뷔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 오 마이 캡틴...완장은 나이순이 아니다

베이스볼 브레이크 2013년 주장, 베테랑이거나 뉴페이스이거나...

팀 이끌고 쓴소리...통상 최고참이 맡아 두산 홍성훈·NC 이호준·LG 이병규 완장 KIA 김상훈·롯데 조성환은 두번째 캡틴

스를 앞세워 분위기 전환을 꾀하거나나.

#### ●베테랑이거나

주장은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사이의 가교 역할뿐 아니라 1군 엔트리에 속한 26명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팀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면서 필요할 때는 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주로 연차가 높은 선수들이 완장을 차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두산(홍성훈)과 NC(이호준), KIA(김상훈), 롯데(조성환), LG(이병규·9번) 5개 구단은 고참급 선수를 선수단 대표로 선출했다. 홍성훈은 두 번째 프리에이전트(FA)를 통해 롯데에서 다시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오자마자 캡틴이 됐다. 두산 김진욱 감독이 "터아웃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준 덕분이다. 이호준(전 SK)도 NC가 주로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신생팀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로 FA시장에서 데려왔다. 김상훈과 조성환은 올해 다시 주장으로 뽑힌 사례다. 김상훈은 2011시즌 최희섭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은 적이 있고, 조성환은 2010년까지 거인군단을 이끌었던 이력이 있다. 이병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쌍둥이팀 주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 ●뉴 페이스이거나

물론 주장이라고 반드시 최고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책임감과 리더십이 있다면 연차를 떠나 누구든 완장을 차 수 있다. 한국시리즈 2연패에 성공한 삼성은 올 시즌 주장으로 최형우를 선택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선수단 납회식에서 열린 주장 선임 투표에서 '선배' 신명철을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진갑용, 강병규 등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었던 과거와는 다른 행보다. 한화 김태균도 팀 내 최고참이지만 통솔력을 인정받아 선수단의 만장일치로 캡틴이 됐고, 넥센 이택근은 지난해 2군으로 내려간 강병식을 대신해 임시 주장직을 수행하다 올해 진짜 주장으로 선출됐다. SK 박정권 역시 조인성, 박진만 등 고참 선수들이 즐비한 팀에서 2년째 주장을 맡게 됐다.

사실 주장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개인성적보다 팀 성적에 더 집중해야 하지만, 주전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말짱이 본인' 자리라는 말도 있다. 그래도 각 구단 주장들은 팀의 기수로 서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팀워크의 중심에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 추신수, 3년연속 연봉조정 신청

2011년 9배 인상...2012년 100만달러 ↑ 2013 시즌 후 FA...연봉 크게 상승할 듯

은퇴선수들 하나로 뭉친다 일구회로 단일화... "대화합 이룰 것"

신시내티로 이적한 추신수(31·사진)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에 3년 연속 연봉조정을 신청했다. AP통신은 16일(한국시간) 추신수를 비롯해 133명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연봉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연속 3할 타율과 20홈런·20도루 이상을 달성하며 주가를 높인 추신수는 2011년 연봉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전년보다 9배 오른 397만5000달러(약 42억원)에 계약하기도 했다.

연봉 조정이란 선수가 원하는 연봉과 구단의 제시액이 서로 다를 때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연봉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저리그는 폴타임으로 3시즌 이상된 선수들에게 연봉조정신청 자격을 주는데, 추신수는 처음으로 자격을 획득한 2011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연봉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 클리블랜드 시절이던 2009~2010년 2년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성실한 이미지를 잃었고, 부상으로 단 85경기에 출장해 타율 0.259, 8홈런으로 부진했지만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추신수는

2011시즌 후 다시 연봉 조정을 신청했고, 역시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100만 달러 가까이 오른 490만 달러(약 52억원)에 2012년 연봉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연봉조정을 신청해도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선수와 구단의 협상이 가능하다.

추신수는 지난 시즌 타율 0.283에 16홈런 67타점으로 부진에서 벗어났다. 2013시즌이 끝나면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연봉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 언론은 추신수의 올해 연봉을 700~800만 달러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 박찬호 "프로야구 감독은 하지 않겠다"

"은퇴후 선수직업은 감독뿐? 편견 깨 것"

은퇴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40·사진)가 "앞으로 프로야구 감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1년간 한화에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한 뒤 12월 은퇴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에서 야구 행정가나 구단 경영인을 목표로 공부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동두천시 소양산 인근 33만㎡ 부지에 야구 공원을 조성할 준비도 하고 있다.

박찬호는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젠틀 맨 코리아'와의 2월호 인터뷰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은퇴 후 택할 직업이 감독뿐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다. 감독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게 먼저다. 박찬호는 "한국은 시즌 중

가족을 철저히 배제한다. 성적을 잘 내고 연봉을 많이 받아 가족에게 풍요로운 삶을 꾸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라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아이들과 최대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예전 같으면 엄마만 찾는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찾으면서 온다.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은퇴를 택한 내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느꼈다"고 털어놨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KIA선수들 성적따라 적립 '러브펀드' 2억5천만원 기부 KIA와 모기업 기아자동차는 1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지난 시즌 적립한 '타이거즈 러브펀드' 2억5551만 6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타이거즈 러브펀드'는 서재용 김상훈 등 31명의 KIA 선수들이 개인성적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 KIA 구단과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적립한 기부금이다.

두산, 내달 日 미야자키 캠프 방문 참관단 모집 두산은 2월 15~17일(2박 3일)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일본 세이부와의 연습경기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http://www.doosanbears.com). KIA도 2월 16일~19일(3박 4일)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여행상품을 선보였다. 주니치와 연습경기, 선수단과 식사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문의 http://www.kiatigers.co.kr)

日 언론 "한국 대표팀 전력 예전만 못하다" 일본 스포츠호치 등 스포츠전문지들은 16일 일제히 전달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의 출정식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들을 내놓았다. 스포츠호치는 "파괴력은 뛰어나지만 투수진이 역대 최저의 전력"이라고 한국팀의 전력을 평가하면서 일본의 대회 3연패에 순풍이 불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포츠닛폰은 "대표 좌완 3인방(류현진 김광현 봉준근)의 이탈로 한국대표팀의 투수진이 약해졌다"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11월 12일 예비엔트리를 발표할 후 벌써 5명의 선수가 바뀌었다"며 전체적인 전력이 다소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한화, 20일 日 오키나와로 전지훈련 한화는 20일 오전 11시 55분 인천 국제공항(OZ 174편)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로 2013시즌 해외 전지훈련을 떠난다. 김용동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60명이 참가하며 외국인선수 대니 이브랜드는 22일, 테니 바티스타는 2월 8일 오키나와 캠프로 합류한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